

제안서

서울여자대학교 바롬_ 환경프로젝트 따릉이타조팀

제안일 2019년 12월 06일

안녕하세요.

저희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바롬프로젝트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팀 [따릉이타조]입니다.

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 보행 관련 행사들을 개선하는 제안서를 기획하였습니다.

먼저,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여러 환경 포럼 홍보가 미약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. 가장 홍보가 필요한 연령층에게 정보에 대한 홍보가 잘 전달되지 않아 개선해야 할 점들을 포함한 제안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.

건명	자전거, 보행 문화행사
대상	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 및 청소년들과 청년층을 포함한 시민들

최근에 주최한 '서울 걷.자 페스티벌' 같은 경우에는 참가 대상이 '15세 이상인 중학생'부터 참가가 가능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를 기획하여 개선한다거나 교육의 장을 '광화문광장은 000이다' 라는 시민참여 문화포럼처럼 자전거 행사 장을 개최하여 다양한 연령들이 함께 모여 아이들도 즐기면서 시민의식도 함양할 수 있는 장이 가능해 질 것 입니다.

현재 방법	개선책
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자전거 및 보행행사	자전거, 보행 문화행사
-참가하는 연령층이 한정: 자전거 행사 경우, 자전거 동호회에서 홍보가 공유된다. 참가 대상의 나이가 하나에만 몰릴 수 밖에 없는 국한된 행사 기획 -'광화문광장은 000이다' 행사의 경우 다양한 세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참가를 신청 받아 문화 포럼에 참가할 수 있다. 이런 곳에 다	-참가 대상은 다양하게 열어놓고 그에 맞는 행사를 기획한다: 어린 친구들 및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행사를 기획하고, 현재 청년층의 고가의 차량을 소비하는 문화에 대한 패러다임을 함께 발언대에서 해소 할 수 있는 장 만들기 등의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

양한 어린이들을 위한 세션은 존재하지 않아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의 연령층이 매우 한정적으로 홍보가 되기도 한다. -차없는 날,거리 행사: 광화문 일대에서 자전거 프로그램이 진행은 되지만 홍보의 미약함이 보인다.	-1. '서울 걷.자 페스티벌과 차없는 날' 행사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홍보와 적은 언급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더 긍정적으로 널리 알리기 부족함이 있다. -2. 자전거 행사라고 해서 수칙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게 되면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만 홍보가 더 될 뿐이다. 자전거를 타지 못하거나 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선뜻 참여하기 꺼려하게 된다. 아래 참조하는 참조 사항을 참고하게 되면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행사 홍보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. - '광화문광장은 000이다'행사와 같은 포럼처럼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몸소 미세먼지를 줄이는 체험들을 하면서 행사를 진행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통해 어린 아이들의 기억에 오래 남아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인식 개선에 효과를 줄 수 있다.
--	---

저희 팀에서 진행한 캠페인을 통해,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에서 따릉이 및 자전거 등에 대한 사용법 과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무지하거나 관심이 부족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였습니다.

행사를 통해서 공공자전거인 서울시 따릉이의 운영수칙이나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는 안전수칙 그리고 이용방법 등에 대해 쉽게 알려주고 다양한 행사를 함께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공공재로서의 도난이나 파손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될 것 입니다.

또한 교육청 및 여러 청소년재단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와 실천이 더 활발해지면, 행사의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가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자전거, 보행 문화행사	효과
축하무대세션: 가수 등의 연예인을 섭외하여 축하 인사와 함께 따릉이의 인식을 널리 알린다	따릉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된다.

자전거 알리미 세션	자전거 안전수칙과 더불어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운영 수칙과 이용방법을 알려줌으로써 교육적으로 공공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. -예시: '키자니아' 체험장의 경우 지진 대비 관련 체험이나 자동차 도로 관련 안전 훈련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다. 이런 예시를 통하여 알리미 세션을 만들고 강화하게 된다면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참여하게 되는 긍정적 홍보가 가능하다.
자전거 전용도로 마라톤 세션	자전거 도로의 활성화를 통해 잘 몰랐던 동네들을 함께 달리면서 가볼 수 있어 그 공간을 재활성화 하는 기회도 마련되어 시장경제가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.

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주최된 자전거 및 보행 페스티벌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, 공공자전거 따릉이만을 위한 세션도 함께 진행되어 행사를 진행한다면 기존의 환경 관련 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주최되는 행사들의 홍보가 더 잘 이루어져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즐거운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혹은 저희가 제안해드리는 이 제안서의 개선책을 하나의 행사로 기획을 하여 따릉이를 포함한 단독 자전거 페스티벌을 기획하게 된다면, 현재 '맑은 하늘 만들기 시민 운동 본부'나 '미세먼지 시즌제' 에서 내세우는 참여형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효과를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.

감사합니다.

위의 참조 사항들을 잘 검토해주시고 문의 및 메일은 아래의 주소로 주시기 바랍니다.

메일: rlad335@citizen.seoul.kr / 연락: 010-7330-2342